



특집-우리꽃 가을축제① 숙근지피식물 품평회의 창을 열다!!

파란하늘을 배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가을의 문턱, 2006년 9월 15일, 우리꽃 이천연구소에는 조경인들과 함께하자는 가을축제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우리꽃'은 고객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연구소내에 전시포장을 마련하여 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욱 아름답고 우아한 신품종의 경험기회를 드리고자 품평회를 개최했다. 사실 작년부터 기획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춰오다 올 가을 처음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다. 이벤트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계절별로 행사를 개최하여 시기별로 다양한 모습과 매년 새로운 경연을 보여드릴 계획이다.



각계 2500여명의 조경인 참석

이번 행사의 목적은 현재 '우리꽃'에서 선보여온 다양한 숙근지피식물을 설명과 결하여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그리고 연구소내 조경현장중에서 숙근지피식물의 적용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좋은 경관현출을 위한 필수조건인 식물소재의 다양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조경인들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교환 등 새로운 조경인의 창으로 만들고자 한다.



4시간에 동안 진행된 우리꽃 가을축제



오후 1시부터 참가자들의 행렬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이런 행사가 업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것이라 각처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축하와 환한 많이 보내져 왔다. 미리 오신분들을 위해 행사장주변에 상품종 및 조경현장사진들을 담은 이젤을 배치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2시를 조금 넘겨 본행사가 시작되었다. 기존에 육묘장으로 사용왔던 유리온실을 정리하여 행사장으로 변모시켰다. 약 2500여명의 참석자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고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행사는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회사의 걸어온 길을 비롯한 우리꽃과 계열회사(포천자연물원, 일조와식자재유한공사, (주)엘비라이프 등)의 현재, 앞으로 계획이 있는 일들에 대한 회사소개가 약 10분간 이어졌다. 이어서 현재 '우리꽃'에서 자주 거론하는 경관농업에 대해 '경관농업을 이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초빙강사인 박석근 교수의 강의가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결하여 이루어졌다.

'신품종소개 및 설명회'는 비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400여종의 신품종을 사진과 다양한 대표의 설명으로 진행하였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기에 아쉬웠지만 실내용행사는 마무리되면서 아쉬움을 충족하기를 외부 연구소 견학이 이어졌다.

전시포장을 위주로 해서 견학이 이루어지면서 전시포장 앞쪽의 모조장, 사무실 앞앞쪽에 조성된 조경공간을 돌면서 현장에서 소재를 직접 보며 설명회가 약 40분 동안 이루어 졌다. 그 이후 저녁식사가 시작되긴한게 자유롭게 관람하고 현장에서 자유롭게 직원들과 그 동안의 공감을 전하고 행사장에서 본 품종들에 대한 질문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으로 이용한 유리온실에서 마련된 저녁식사를 끝으로 처음으로 진행된 우리꽃 품평회 '우리꽃 가을축제'의 막을 내렸다.

내년 '우리꽃 품평회'에 초대합니다.



"너무 좋은 소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꽃이 피어있는 식물이 많지 않았다." "영양으로도 계속 이런행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번 행사에 오신분들마다 각각 여러가지 느낌을 전해주었다. 처음이라 부족함에도 많이 있었으리라 본다. 특히 시기적으로 꽃이 많이 없었던년도 있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한번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매년 시기별로 이어질것이니 더 많은 꽃을 감상할 수 기회는 많이 있리라 본다.

'우리꽃 품평회'는 '우리조경인상'과 더불어 우리꽃의 우아한 품종들을 이용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들에 대한 환원사업의 일환이다. '우리꽃' 등 지면을 통한 정보제공을 넘어서 생동감 넘치는 현장에서 정보제공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경계의 소재의 빈곤을 탈기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조경으로의 안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사를 드리고 내년 '우리꽃 품평회'에 다양한 이벤트와 불거리로 여러분들을 다시 초대합니다. ☺

Contents

- 우리꽃 가을축제 ① 숙근지피식물 품평회와 창을 열다.....1면
- 우리꽃 가을축제 ② 행사 소개.....2면
- 우리꽃 가을축제 ③ 사관으로 돌아보는 품평회.....3면
- 경관디자인-이천연구소 AR/IT.....4면
- 대표조경식물(Genus).....5면
- 숙종,숙종식물의 물리론 이해.....6면
- 식물가이드 프로젝트.....7면
- 특집 2006 국제현대조경학회.....8면
- 방정현의품평회.....9, 10, 11면
- 재미있는 기호는 이성화.....12면
- 제13회 우리조경인상 대상-중국류기대.....13면
- 우리 바이오에 연구소 개원해 부처.....14면
- 지상조경-이천연구소 113친환경 생산-연구지.....15면
- 보전 부식물원.....16면

특집-우리꽃 가을축제② 행사 스케치

1.우리꽃소개

우리꽃은 종자, 묘종, 자재, 조경, 식물원, 연구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들이 있다. 이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회사 소개가 이루어졌고 우리회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회사소개를 해드립니다.



〈회사연혁〉

- 1999년 4월 우리꽃 설립
- 1999년 10월 중국변지법인 공명화훼종자유한공사 설립
- 2002년 3월 전남지사 설립
- 2003년 2월 이천농장 설립
- 2003년 8월 조경용 식물기대도 격월간 '우리꽃' 발간
- 2004년 9월 (주)영원라이프 설립
- 2004년 10월 한양대학교 자재개발
- 2005년 3월 (주)영원라이프 전문컨설팅 면허 등록
- 2005년 3월 경남지사 설립
- 2005년 4월 서울지사 베스트기든 설립
- 2005년 10월 네덜란드 국제화훼전시회(International horitlan)참가
- 2006년 3월 일조화산자연유한공사 설립
- 2006년 4월 모친박식물원 설립 및 개원
- 2006년 6월 제1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박람회(ANDEX 2006)참가
- 2006년 8월 서울 국제 화훼전시회(C 2006) 참가
- 2006년 9월 우리꽃 부설연구소 우리라이프화학 설립
- 2006년 9월 우리꽃가을축제특별회 개최
- 2006년 10월 제3회 동경 국제 플라워 엑스포(FEX 2006)참가



2.신품소개 및 설명회

다양한 품종을 이해가 쉽게 품종군으로 묶어서 사진을 통해 1차로 설명회를 가졌다. 현재 판매되어지고 있는 품종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보일 품목까지 다양하게 소개되어졌다.



이 내용은 앞으로 출간될 가이드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편집되어 소개되어질 것이다. 예상보다 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좀더 알차게 구성하고자 하는 욕심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많은 기대바란다.



3.연구소 견학

① 800여명 부지에 마련된 전시포장은 각품종별로 2-3 포기씩 심어 각 품종이 다 지났을때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주요 품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설명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전시포장 앞쪽에 심겨져있던 카펫투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외에도 지금 한창 꽃이 좋은 아스타류, 개량투룩스, 가우라 등에 큰 관심을 보였고 수박위에 식재된 삼복산다재엽에도 눈길을 모았다.

② 전시포장 반대편으로는 모포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증식용, 모주용, 실험용으로 사용되어질 품종들이 식재되어져 있다. 한 두목씩 심겨져있던 무늬억새, 황금조팝, 삼색조팝, 속근코스모스 등이 관심을 끌었다. 자유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면서 많은 품종들에 관심을 내보였다.



③ 연구소내에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혼합소재, ARI 가든, 계류 등을 조성하여 방문자들이 직접 다양한 조경공간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에 노력했다.

이번 행사에서도 ARI가든을 중심으로 조경현장에서 바로 조경에 이용된 소재들을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우리꽃 가을축제 설문조사 |

우리꽃 가을축제시 조경인들의 인프라 향상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100여명이 넘는 조경인 여러분들께서 성심 성의껏 답해주셨습니다.



【질문1】 '속근지피식물을 설계하거나 직접 구입 및 식재시 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에 관한 답변

- 1.정확한 식물의 명세사항에 필요성 (식물의 원도, 화형지 조건, 유래...)
- 2.식재후 바로 반영을 이룰수 있는 대형 규격의 생산이 필요하다.
- 3.이러한 종류를 한번에 대량구입하는데 따른 어려움.
- 4.반면에 인건비가 대체로는 물품연구의 필요성.

【질문2】 '우리꽃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에 관한 답변

- 1.외국의 속근지피식물을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
- 2.완성된 조경의 다양한 사례소개(가든, 이니티브조경, 공원조경, 가로수)
- 3.식물조경 조경의 필요성과 관련 식재방법 등의 설계시 필요 정보
- 4.지향 조경인들의 소개 등으로 조경인들의 인프라 구축.

【질문3】 '연 조경계의 속근지피식물 적용의 흐름과 전망은?'에 관한 답변

- 1.경관성과 기능성이 고려된 외국과 동쪽 아열대기 위해 가는 방법 모색.
- 2.수종선택의 빠른 디테일 추구
- 3.빠른 피복효과로 인간에 정감의 발발 연구.
- 4.도시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속근지피식물의 개발 필요성.

'우리꽃'은 소중한 조경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심층분석하여 조경인간의 교류보완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집-우리꽃 가을축제③ 사진으로 돌아보는 품평회



현장 리포트 계절별로 새로이 옷을 갈아입는 “이천연구소 ARI가든”

락가든은 기존의 자연여건을 살리면서 둘과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이용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경관연출기업이다. 자주 외국의 식물원 등지에 방문했던분이라면 락가든이 형성되어있는 모습을 종종 보았을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기후조건 등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고 '우리꽃'이 조성하는 락가든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식재패턴에서도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이 명칭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ARI(Alpine Rock Island)가든이라 명명하였다. 앞으로는 락가든이라는 표현보다는 ARI가든으로 표기하게 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론 통절기에도 상록성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한 ARI가든의 계절별 변화되는 모습을 이천연구소 ARI가든사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월 초 4월 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봄꽃이 만개하기 시작한다. 들꽃사이, 가든 앞쪽으로 꽃잔디가 만개하며 봄을 처음으로 신고한다.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무늬종시리즈 15



건조지 녹화의 대명사인 세덤류종에서 대표적인 무늬종인 노란줄무늬세덤(Sedum kamtschaticum Variegatum)은 화판에서 알 수 있듯이 기린초계통의 세덤이다. 하지만 자란이 기린초와 같이 직립이러기 보다는 옆으로 퍼지면서 원형형태를 이루는 포복형이다. 잎가장자리에 노랑색 무늬가 좋아 세덤화석 블루세덤, 단풍세덤 등 다양한 집강의 품종들과 같이 식재하면 잘 어울리고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늬와 구형의 식물들이 풍기 때문에 암석가든 등에 독립적으로 2-3피트 모아 심어도 좋은 경관을 보여준다. '2006 LANDX'에서 '우리꽃'이 보여준 미니 ARI가든에서도 노란줄무늬세덤 1피치가 둘과 잘 어울려 식재 되어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꽃은 6-7월에 피는데 처음 피기전에 등한 꽃말에서는 연분홍빛이 감싸들면서 노랗게 꽃을 피운다. 노랗게 별모양의 꽃이 만개되었을때도 아름답지만 꽃이 만개되기전에도 꽃말들이 멋있을때 잎의 무늬와 잘 어울리며 색다른 느낌을 가져다준다.

세덤류가 대부분 암석쪽에 적응 가능하지만 노란줄무늬



5월 꽃잔디가 사라지며 기다렸다는 듯 잔디 패랭이, 상록잔디패랭이가 활짝 피고 왕상록패랭이가 꽃말을 머금고 있다. 중간중간에 노란색, 빨강색, 분홍색 들꽃 미품종들이 보이고 화단 중앙쪽으로는 봄의 귀부인 앙귀비가 눈에 들어온다. 먼저 아이슬란드뽕배가 얼굴을 내밀고 뒤이어 큰꽃을 자랑하는 강렬한 오리엔탈뽕배가...



6월, 7월 봄의 화려한 잔치가 끝나며 화단중앙부의 무늬암석을 비롯한 그라스류가 재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무늬세그라스는 마치 정원을 지키듯이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 힘차게 뻗어있다. 그리고 화단 전체적으로 각 식물마다 제품을 완벽하게 형성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스텔라원추리를 비롯해, 속근코스모스 등이 노란무리를 이루고 있고 20여종의 세덤종류가 때로는 꽃을, 때로는 아름다운 잎의 질감을 내세우며 화단양쪽을 장식하고 있다. 또한 잎의 무늬가 좋은 유카 '브라이트에지'의 하얀색꽃이 방울방울을 춤을 추고있다.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루며 여름을 시원하게 해준다.



가을 여전한 속근코스모스가 위용을 보이며 가을꽃인 아스타류와 속근꽃향유가 보인다. 구형의 큰경의비름 '반주'가 빨강계 익어있고 무늬암석, 수크럼 등 그라스류는 완전히 제품을 형성하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겨울 한겨울에도 상록성을 유지하는 식물들로 인해 허전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상록성의 세덤류, 들꽃잔디, 패랭이류, 그라스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유카를 비롯하여 잎이 갈변해도 그형태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액세류가 서로 어울려 추운 겨울을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



약 30평의 면적에 80여종의 식물이 심겨져있는 이천연구소 ARI가든.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봄종이 다양한 고급소재

- ▶ 화기가 길고 생육이 강하다
- ▶ 화색이 아름답고 고급정원용, 공원, 골프장에 안성맞춤
- ▶ 각 품종간에 혼식하거나 단독군식해도 좋다.



구입문의: ☎ 우리꽃 02-3412-1281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 9

Veronica속

일반적으로 고리플류로 불리워지며 세계적으로 250여 종이 존재한다. 꽃의 모양이 대부분 고리모양을 띄고 있고 국내지생종으로는 고리플, 긴산고리플, 큰산고리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화색과 창기개화형의 많은 품종이 조경에 이용되어지고 있다.

고리플 블루

고리플 블루(Veronica 'Sunny Border Blue')는 창기개화형으로 5월부터 여름동안 블루색의 시원한 꽃을 피운다. 잎이 다른 프리플류에 비해 크고 두껍다. 키는 60cm까지 자란다.



고리플 리틀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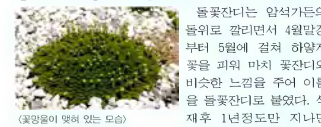
고리플 리틀블루(Veronica 'Blue Dwarf')는 키가 작은 왜성종으로 30cm까지 자라며 전체적으로 잎과 꽃은 작지만 다화성으로 많은 보라색꽃을 피운다. 고리플류에서 가장 창기개화하는 품종으로 6-10월까지 아름다운 꽃을 선보인다.



육상, 암석가든용 식물 9

이번에 소개하는 돌꽃잔디(Saxifraga aizoides)는 계란꽃(Saxifraga aquilegifolia)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는 식물이다. 같은 Saxifraga속으로 Saxifraga속 식물은 전세계적으로 약440여종이 존재하고 대부분 육상, 암석가든용 식물로 유용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다.

돌꽃잔디는 암석가든의 돌위로 깔리면서 4월말경부터 5월에 걸쳐 하얗게 꽃을 피워 마치 꽃잔디와 비슷한 느낌을 주어 이를 돌꽃잔디로 불렀다. 식재후 1년정도만 지나면



(꽃말들이 멋있을 때는 모습)



고리플 이브

고리플 이브(Veronica 'Eveline')는 꽃은 진분홍색이며 키는 약55cm정도 자란다. 많은 꽃을 피우는 다화성이며 화색도 매우 고운 느낌을 가져다준다.



긴산고리플

긴산고리플(Veronica longifolia)은 우리나라 전국산지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야생종으로 1m이상까지 자란다. 꽃은 7-8월에 피고 긴오리형태의 하늘색이며 여름에 매우 시원함을 느끼게 해준다. 키가 커서 혼합식재시 뒷줄 식물로 활용하면 여름에 좋은 꽃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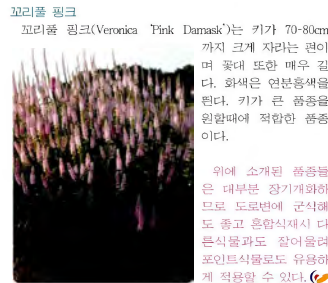
고리플 로켓

고리플 로켓(Veronica spicata 'Rothfuchs')은 빨간색꽃을 가진 품종으로 이품종도 키가 약 35cm정도로 작고 여름 동안 꽃을 피운다. 특히 화색이 매우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워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품종이다.



고리플 핑크

고리플 핑크(Veronica 'Pink Damask')는 키가 70-80cm까지 크게 자라는 편이며 꽃대 또한 매우 길다. 화색은 연분홍색을 띤다. 키가 큰 품종을 원할때에 적합한 품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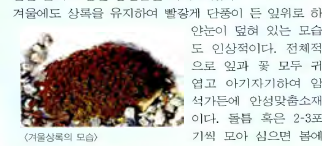


위에 소개된 품종들은 대부분 창기개화하므로 도로변에 군식해도 좋고 혼합식재시 다른 식물과도 잘 어울려 포인트식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겨울상록의 하얀색 꽃무리 “돌꽃잔디”

잎의 형태가 커지고 구형을 이루며 일차재만으로도 매우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계란꽃의 경우 건조와 복사열에 강한 반면 습에 매우 약했지만 돌꽃잔디는 웬만한 습에도 강한 강건함을 가지고 있다.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여 빨강계 다종이든 은 잎위로 하얀눈이 덮여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전체적으로 잎과 꽃 모두 귀엽고 아기자기하여 암석가든에 인성맞춤소재이다. 품종 폭은 2-3피치 모아 심으면 봄에



(겨울상록의 모습)

눈꽃같은 하얀꽃과 이후에 귀여운 잎을 통해 암석가든에서 연중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특집 2006 서울국제원예전시회

세계진출을 위한 다양한 조경용 숙근지피식물을 선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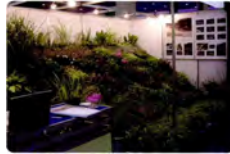
"2006 서울 국제원예전시회"가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농림부와 국제원예학회(ISHS)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원예연구가와 농업인들의 월드컵인 2006서울 국제원예전시회는 '지구촌의 원예, 다양성과 조화'를 주제로 70개국 150개 업체가 참가해, 그동안 개발한 국제적인 특허기술과 자재, 기계, 상품품들이 전시되었다. 전시기간 동안 모두 6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그 효용도 또한 높아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다.

또한 본 전시회의 주제관인「한국원예관」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컨셉으로 한국원예의 발전과정을 표출하여 첨단 농업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면서 움직이고, 관람객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전시관을 꾸민 것 뿐 아니라, 회귀 유전자원, 종촌 전홍기관이 개발한 상품종, 품자, 수출용

스타튜와 다양한 그라스류의 전시를 통하여 변화하는 조경시장의 흐름을 '우리꽃'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예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의 참여도가 높았는데, 여러가지 꽃을 계절별로 보고싶어 하는 그들의 바람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조경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판매했던 우리꽃 혼합종 및 잎도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조경용 지피소재 개발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LANDEX 2006에서는 우리꽃의 다양한 조경용 숙근초를 이용한 고급 조경 식재기법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2006 서울 국제원예전시회에서는 '우리꽃'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조경용 숙근초 품종을 전시해, 회사가 지닌 우



수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국제 원예전시회' 인 만큼 해외 바이어들의 상담도 이어져서 '우리꽃'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좋은 소재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적 이미지를 갖춘 패랭이류, 숙근코스모스, 붓꽃류, 눈꽃은빌레 등과 같은 우수한 품종들이 세계시장에서 우위에 선다면 그것은 '우리꽃'의 발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세계속에 한국을 알리는 또 다른 길이 될 것이다.



LANDEX 2006과 '2006 서울 국제원예전시회'를 계기로 '우리꽃'은 지속적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조경용소재와 조경기법 등을 소개해서 큰 효용을 받았다. 그의 한 방편으로 오는 10월 19일에 동경에서 열리는 동경 국제원예박람회(IFE 2006)에도 '우리꽃'이 참가할 계획이다. 이번 IFE 2006에 참가로 다변하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꽃'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세계 조경계의 흐름을 좋은 소재들을 발굴하여 국내시장으로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2006 서울 국제원예전시회 '우리꽃' 행사장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현장히트 품종

겨울에도 상록의 아름다운 무늬 실유카 브라이트에지



1. 황금색의 밝은 무늬종
2. 전혀 새로운 겨울 조경이 가능하다.
3. 무늬가 뚜렷하고 질감이 좋아 독립으로도 양호

질감이 뛰어난 잎과 아름다운 가을꽃 해변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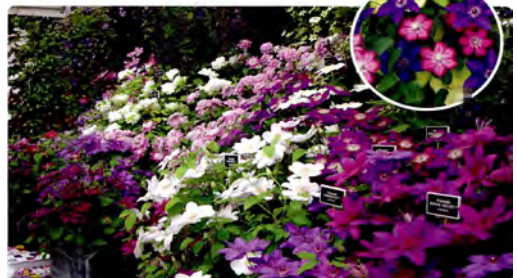
1. 진화색의 잎은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2. 주먹형의 노란색꽃은 늦가을까지 유지된다.
3. 잎과 꽃이 모두 좋아 단독으로 심어도 좋고 다른 가을꽃과 어울려 심어도 좋다.

잎과 꽃이 좋은 최고의 관목소재 황금조팝



1. 아름다운 황금빛과 꽃이 잘 어울리는 조팝
2. 공원, 도로변, 골짜기 등에 화양목이나 철쭉대용으로 활용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3. 생육이 강하고 번식력이 뛰어나다.

화려한 덩굴식물 클레마티스



1. 꽃이 매우 아름다운 고급 덩굴식물
2. 화색이 다양하여 아름다운 경관연출가능
3. 트렐리스 등 지지대를 이용하여 품종간 혼식하거나 붉은인종 등 다른 덩굴식물들과 혼식해도 좋다.

다화성의 키작은 용담 하늘용담



1. 늦가을까지 보석같은 꽃을 피운다.
2. 잎의 모양, 식물종, 화색, 화형이 모두 좋은 용담
3. 일반 화단은 물론 옥상 텃밭가든에도 좋다.

고급조경의 필수소재 가우라



1.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개화
2. 생육이 강하고 화색이 다양하다
3. 우리의 전시에도 알맞아 도로변을 비롯하여 골짜기, 공원, 식물원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전문성

비용

사후관리

(주) Wellbeing Life 가 야생화, 지피식물
조경식재의 재장을 열어드립니다.

조경식재업체 용인2005-18-0002

(주) Wellbeing Life

(주) Wellbeing Life 는 조경식재 전문회사로서 많은 재배 및
식재경험의 노하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고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지피식재분야는
잘 알고 이론과 경험을 갖춘
Wellbeing Life 가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Tel : (02) 3412-1281~2 Fax : (02) 3412-1283

야생화 종자,묘종,식재
한방에 OK!

분홍색 루드베키아
에키나
장기개화형의 이국적 아름다운



1. 생육이 강해 어떤 환경도 좋다.
2. 꽃이저도 열매가 아름다운 이상형

화색	분홍	화기	7-8월
원도	양지	초장	70-80cm

정열적인 여름화산
왜성노나다
새로운 개념의 화단,도로용 지피식물



1. 매우 정열적인 화려함을 선사
2. 잎의 향기가 뛰어나 생육이 강건하다.

화색	빨강	화기	6-8월
원도	양지	초장	50-60cm

왕송지의 새로운 지피식물
무늬피막이
보양피복력이 뛰어난 무늬종



1. 습지와 나무아래 음지에서도 생육이 좋다.
2. 골짜기의 배수불량지나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하는 습지, 잔원목의 구석잔교, 들계단틀새 적용

화색	황색	화기	6-9월
원도	음지, 습지	초장	5cm

이색적인 무늬종, 아주가
레인보우 아주가
음지의 빠른 녹화



1. 잎의 무늬가 아름답고 지피력이 뛰어나다.
2. 나무아래를 음지에 군식하면 좋다.

화색	보라	화기	5-6월
원도	음지, 반음지	초장	10cm

하얀색 루드베키아
에키나 '스노우'
순백의 이국적 아름다운



1. 색다른 느낌의 조경소재
2. 생육이 강해 어떤 환경에도 좋다.

화색	하양	화기	7-8월
원도	양지	초장	70-80cm

음지의 뛰어난 신소재
무늬여귀
생육이 매우 빠른 무늬종



1. 잎의 질감과 무늬가 좋은 고급종
2. 음지의 빠른 지피를 위한 최고의 소재

화색	무늬종	화기	7-8월
원도	음지,반음지	초장	40-50cm

새로운 개념의 사막비아
속근사루비아(5품종)
생육이 왕성하고 재배하기 쉬운



1. 생육이 강건하고 화색이 아름다운 사루비아
2. 매년 교체할 필요없이 1회 식재로 OK

화색	5품종	화기	6-9월
원도	양지	초장	40-50cm

잎이 큰 대형 아주가
왕아주가
질감이 좋고 피복력이 최상



1. 잎이 두껍고 광택이 있어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2. 꽃이 대형이라 식재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색	보라	화기	5-6월
원도	양지, 음지	초장	10-15cm

분부터 가을까지 피는 잔디같은 패랭이
잔디패랭이
화색이 좋고 피복력이 최상



1. 꽃이 장기간화되고 꽃방석을 이룬다
2. 키가 작고 줄이 잔디밭이나 골프장, 방치 화분 등의 조경에 최상

화색	진분홍	화기	4-10월
원도	양지	초장	10cm

잎과 꽃이 붉은빛을 띠는
붉은애기평의비름
지피력이 좋은 세덤류의 신소재



1. 건조한 곳의 생육에도 매우 양호
2. 다양한 화색의 고급 정원용, 공원, 골프장용

화색	분홍	화기	7-8월
원도	양지	초장	10-15cm

잎이 좋은 대형의 무늬종 갈플
대형무늬갈플
독립수로도 좋은 대형종



1. 잎 자체만으로 뛰어난 관상 가치가 있다.
2. 대형식물로 포인티식물 또는 군식해도 좋다.

화색	무늬종	화기	7-8월
원도	양지	초장	70-100cm

화색의 새로운 소재
팬스테온 상록후엽
하얀색 꽃무리와 붉은열의 조화



1. 활백인 잎의 질감이 뛰어나다.
2. 꽃과 붉은 잎은 포인티식물로 좋다.

화색	하양	화기	7-8월
원도	양지	초장	50-60cm

비단에 물을 뿌린 화색
왜성아스타
생육이 강건한 금분초형



1. 생육이 빠르고 방울해가 적다.
2. 서리에도 강해 늦가을까지 화려한 꽃을 연출

화색	진분홍	화기	9-10월
원도	양지	초장	30-40cm

임무늬가 뛰어난
무늬금계국
생육이 강한 고급 정원용



1. 키가 작은 무늬종 금계국
2. 줄기의 무늬가 좋아 포인티식물로 좋다.

화색	노랑	화기	6-9월
원도	양지	초장	40-50cm

'우라울'이 개발한 신종종 구절초
분홍구절초
분홍의 화려한 꽃방석



1. 화기가 빨라 일반 구절초와 장기개화 유도
2. 줄기가 단단하고 직립형이라 쓰러짐이 없다.

화색	분홍	화기	8월말-10월
원도	양지	초장	60-70cm

음지의 빠른 지피
무늬엔젤리카
화려한 무늬의 잎과 꽃



1. 습기가 많은 여름철 최고의 식물
2. 생육이 강건하고 음양지 및 건조지를 가리지 않는다.

화색	하양	화기	5-6월
원도	양지,음지,수변	초장	50-60cm

잎의 질감이 매우 뛰어난
은썩
은화색의 뛰어난 지피력



1. 지피력이 매우 뛰어나다.
2. 잎의 질감이 뛰어나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화색	노랑	화기	5-6월
원도	양지	초장	5-10cm

꽃이 화려한 영글초 초본식물
속근스위트피
올타리녹화를 위한 신소재



1. 펜스복합식 단독 또는 기존 영글식물과 혼재가 심지어 좋다.
2. 생육이 강건하고 자라기 빠르다.

화색	혼합	화기	6-7월
원도	양지	초장	영글성

음지의 빠른 지피
무늬엔젤리카
화려한 무늬의 잎과 꽃



1. 습기가 많은 여름철 최고의 식물
2. 생육이 강건하고 음양지 및 건조지를 가리지 않는다.

화색	하양	화기	5-6월
원도	양지,음지,수변	초장	50-60cm

시원하고 아름다운 여름의 귀족자
리아트리스
잎과 꽃이 아름다운 장기 개화형



1. 화기가 길고 생육이 강하다.
2. 빨강색의 꽃은 매우 화려하다.

화색	빨강	화기	6-10월
원도	양지, 반음지	초장	50-70cm

분부터 가을까지 연속 개화
상록잔디패랭이
잔디패랭이보다 더크고 화려한 꽃방석



1. 여름에도 장기간 피는 상록성의 잎은 장기간 매우 뛰어나다.
2. 군식하거나 라인식물, 혼합식재시 알록식물, 육상초본, 들물식재, 등에 이용하면 좋다.

화색	분홍	화기	4-10월
원도	양지	초장	10-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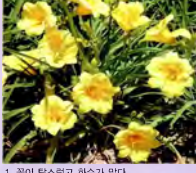
키 작은 미니부들
애기좁부들
수종식물의 새로운소재



1. 도시가정의 작은 연못(동여도) 부들군락 재현 가능
2. 키가 적당히 커 화상의 조경을 수변식물 연못으로도 좋다.

화색	갈색	화기	7-8월
원도	양지, 수종	초장	40-60cm

분부터 가을까지
스텔라원주리
키가 작은 최상의 연중 개화종



1. 꽃이 탐스럽고 화수가 많다.
2. 꽃이 분홍과 노랑을 띠어 실내조경에도 유리

화색	노랑	화기	5-9월
원도	반음지, 양지	초장	20-30cm

잎의 질감이 좋고 노란색이 좋은
알기밀라
어디나 적용가능한 고급조경용



1. 화단용, 락가든, 라인 식물로 어디에 사용해도 좋다.
2. 사리에도 강해 늦가을까지 화려한 꽃을 연출

화색	노랑	화기	5-6월
원도	양지,반음지	초장	20-25cm

키가 작은 상록성 기린초
상록애기리린초
건조지 및 옥상녹화용



1. 잎의 광택이 좋고 겨울 상록
2. 식물음이 좋아 군식 또는 보복성 새엽과 어울려 심으면 좋다.

화색	노랑	화기	6-7월
원도	양지	초장	15-20cm

신개념의 수변식물
무늬글리세리아
연못주변의 새로운 대안식물



1. 무늬가 매우 아름답다.
2. 키가 적당히 커 화상의 조경을 수변식물 연못으로도 좋다.

화색	무늬종	화기	7-8월
원도	양지,반음지,수변	초장	60-90cm

잎의 질감이 좋고 노란색이 좋은
애브그린아이비
음지의 새로운 대안



1. 잎이 아주 조밀하게 지려야 광택이 좋다.
2. 생육이 강건하고 연못과 인공계곡 등에 이용하면 좋다.

화색	무늬종	화기	7-8월
원도	음지	초장	포복

다양한 화색의 자유로운 물결
아네모네
화색이 아름다운 고급 가을꽃



1. 생육이 강건하고 화색이 아름답다.
2. 가을꽃이 부족한 조경현장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소재

화색	노랑	화기	9-10월
원도	양지	초장	100-120cm

무늬가 아름다운 인동
무늬인동
올타리녹화를 위한 신소재



1. 이색적인 잎과 아름다운 꽃이 잘 조화를 이루는 덩굴식물
2. 기존의 인동과 반달이 식재해도 좋다.

화색	하양	화기	6-7월
원도	양지	초장	영글성

대형의 수종식물
무늬큰고랭이
초형이 아름다운 무늬종



1. 독립적이고 안정된 초형의 수종식물
2. 연못조경시 다른 식물과 잘 어울려 포인티식물로 활용하면 좋다.

화색	무늬종	화기	7-8월
원도	양지	초장	170-200cm

실터래같은 수변의 무늬종
해변무늬실사초
건·습지 등 어디에서나 생육이 가능한



1. 잎의 형태나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2. 생육이 강건하고 연못과 인공계곡 등에 이용하면 좋다.

화색	무늬종	화기	7-8월
원도	양지,음지,수변	초장	30-40cm

다양한 화색의 자유로운 물결
개랑강국
장기개화형 강국



1. 장기개화형으로 분부터 다양한 꽃을 감상
2. 사리에도 강해 늦가을까지 화려한 꽃을 연출

화색	혼합	화기	6/9-10월
원도	양지	초장	70-80cm

순백의 무늬가 돋보이는
무늬염주그라스
고급화단용 그라스 소재



1. 순백의 무늬가 좋아 라인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2. 하교현상으로 기타아름식물과 혼식하는것이 좋다.

화색	무늬종	화기	6-7월
원도	양지, 반음지	초장	15-20cm

잎의 질감이 뛰어난 매트형
패랭이 '핑풍'
락가든용 패랭이



1. 잎이 매우 조밀하여 질감이 뛰어나다.
2. 초형이 매트형으로 락가든에 이용하면 매우 좋다.

화색	분홍	화기	5-6월
원도	양지	초장	5cm

음지의 새로운 신소재
무늬광대나물
잎과 꽃이 모두 좋은



1. 무늬가 화려하고 지피력이 매우 빠르다.
2. 음양지 및 건조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화색	보라	화기	5-7월
원도	음지, 양지	초장	30-40cm

음양의 구별없는 무늬종
무늬어썬초
수변식물로도 OK



1. 양음지, 수변 등 재배적용력이 매우 넓다.
2. 일반무늬종과는 달리 생육이 매우 빠르다.

화색	흰색	화기	6-7월
원도	양지, 습지, 수변	초장	40-50cm

동자꽃의 새이름
비단동자
건조에도 강한 화려한 동자



1. 일반동자꽃에 비해 생육이 매우 강하다.
2. 건조, 건조에 강해 관리가 쉽고 화려하다.

화색	진분홍	화기	5-6월
원도	양지	초장	50-60cm

음지의 새로운 신소재
무늬광대나물
잎과 꽃이 모두 좋은



1. 무늬가 화려하고 지피력이 매우 빠르다.
2. 음양지 및 건조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화색	보라	화기	5-7월
원도	음지, 양지	초장	30-40cm

음양의 구별없는 무늬종
무늬어썬초
수변식물로도 OK



1. 양음지, 수변 등 재배적용력이 매우 넓다.
2. 일반무늬종과는 달리 생육이 매우 빠르다.

화색	흰색	화기	6-7월
원도	양지, 습지, 수변	초장	40-50cm

꽃물결의 다채로운 물결
스티치스
잎과 꽃이 모두 좋은 소재



1. 키가작고 직립의 꽃무리가 아름답다.
2. 포기생장이 빠르고 많은 꽃대를 형성한다.

화색	보라	화기	7-8월
원도	양지	초장	40-50cm

■ 취미로 기르는 야생화 ⑨ 생육이 강건하여 기르기 쉬운 “기린초”



기린초(*Sedum kamtschaticum*)는 여러해살이풀로 뿌리줄기는 두껍고 줄기는 모여나며 원기둥모양이고 녹색이다. 줄기의 높이는 5~30cm정도로 자란다.

기린초는 산의 양지바른 바위 절에서 자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기린초는 저하경이 출생하고 종중기부에



(금강기린초)

보축하여 잎의 형태에 따라서 많은 변종이 있다.

기린초는 실생 및 무성으로 번식하는데 주로 줄기삽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분주, 실생번식이 있다. 실생번식은 종자를 8-9월에 채취하여 이듬해 봄에 파종하고자할 때는 자연지장하였다가 모래에 섞어서 뿌린다. 그러나 종자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모래와 섞을 때 혼합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종자를 묘상에 뿌리고 덮을 때는 표토를 얹어주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깊게 묻어주었을 때 발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무성번식은 삽목이나 분주로 하는데 삽목은 포트양묘와 노지 어느 쪽에서

재배하든 손쉽게 묘를 얻을 수 있고 이식 후에 활착율이 높다. 다른 야생화에 비해서 재배가 손쉬운 편이다. 분주는 포기나누기를 할 경우 시기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꽃을 보기 위해서는 전년도 10월경에 실시하는 것이 좋고 방법은 뿌리를 깨내는데 얇게 뿌리가 분포하기 때문에 삽목으로 파서 흙을 털고 전정가위로 눈을 1-2개 붙여서 심어두면 된다.

연한 어린순은 식용하는데 주로 4월 중에 채취하여 가법계 대체



(백두산기린초)

서 나물로 먹으면 맛이 대단히 단백하다.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백상청이라고 한다. 사용부위는 정초를 사용하는데 꽃이 필 때 채취하여 말려서 달여서 사용한다.

약효는 지혈, 이뇨, 진정, 소종 등에 사용하고 혈액의 순환을 돕는다고 한다. 적용질환은 토혈, 코피 흐르는 증세, 혈변 등에 사용한다. 약재는 1회에 2-4g씩 200cc 물에 달여 복용하거나 생잎의 즙을 내어 먹기도 한다. (C)

기린초 삽목 과정



① 포트묘에서 삽목자르기
② 삽수
③ 삽수를 직접 묘상에 삽입
④ 삽목후 2-3개월뒤 포트묘

■ 토종허브를 찾아서 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향기식물 “창포”



창포(*Acorus calamus* var. *Angustatus*)는 습지에서 자라는 다년초로서 지방에 따라 정피, 정피풀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백창(白昌), 취창(臭昌), 수창포(水昌蒲), 이창(泥昌)이라 한다.

창포는 물가의 댐에 뿌리를 내리고 굵은 근경을 통해 지면을 얹게 기면서 뻗어 나간다. 물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잎이 물에 반 정도 잠겨도 잘 자란다.

창포잎은 곧추서고 도드라진 중앙 맥맥이 뚜렷하다. 초여름 잎 사이에서 옥수수 모양의 화서가 돋아나 잎 사이에 감춰져 있다.

창포는 근경을 비롯하여 잎과 뿌리 등 전체에 방향성 물질을 갖고 있다. 잎을 비비면 맑은 향기가 코끝을 감돈다. 창포를 삶으면 향기로운 물이 우리나라와 북쪽물로 사

(*Eugenol*) 등이다. 근경에는 쓴맛을 내는 아코틴, 약 20% 정도의 전분과 들어 있고, 탄닌, 비타민,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다. 특히 비타민과 아스코르빈 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지만 독성 물질도 함께 포함하고 있으므로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주로 근경을 약제로 쓰는데 위액과 염산을 잘 나오게 하며 발맛을 좋게 한다. 진정 작용이 있어 눈을 맑게 하고 청력을 높여 준다.

민간요법으로는 해열제, 설사약, 감기 치료에 쓰고, 전초 달인 것을 증이열에 마시고 생즙은 피부병에 붙인다. 특히 창포 근경에 눈꺼팍 알, 백선자 알, 초피나무 기름, 복비나무 송진을 섞은 것을 무릎과 습지에 바르면 특효를 본다고 했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창포의 가치를 인식하여 널리 재배하고 있다. 창포에서 방향성 건위성분을 추출하여 의약품 제조해내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창포에서 향료를 뽑아 화장품, 고급향수를 제조하기도 한다. 동양의 자연식물이 자생지에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식물을 갖고 간 나라에서는 생활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창포는 약용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었다. 옛날에는 중요한 향색 염료식물이었다. 창포물을 끓인 배는 다갈색의 파스텔톤인데 짙은 색을 내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갈색이 된다. 창포물을 들인 배로 옷을 지어 입으면 몸에서이나 비록 같은 기생충이 생기지 않는다 하여 매우 귀하게 여겼다. 또 종이에 창포물을 들여 서화 매장에 썼는데 오래도록 흠이 솔지 않고 종이에서 향기가 난다고 했다. (C)



(두비창포)

제3회 우리조경인상 大賞 중국을 가다!!



(정산 C.C. 김민규 대표)

편집자주

“우리꽃”에서 보급한 우형의 소재를 현장에 잘 적용하여 한 차원 높은 경관연출을 가능하게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조경인상”이 올해로 3회를 맞는다.

대상 선정업체 담당자들과 우리꽃 직원 4명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연수를 다녀왔다. 중국연수를 다녀온 정산 C.C. 김민규 대표의 글을 실는다.



아직도 백두산 천지에서 바라 본 산은 물과 웅장함은 내 머리와 마음속에 감흥으로 남아 그리움으로 변해 버렸다. 장춘행 아시아나 항공에 몸을 실은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우린 장춘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 평인지 중국 평인지 여기저기서 들리는 우리의 말... 꼭 우리나라공항에서 입국 소속을 받는것만 같았다. 모두들 우리의 명산 백두산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돌아온 모양이다. 우리를 기다리던 현지 관리인의 밝은 얼굴에는 꼭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자식들을 맞으러 나온 것 만큼 반가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일행은 미리 대기해 놓은 흰색 버스를 타고 길이 없을 것 같은 직선도로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백두산을 오르는 첫 등반인 이도백하로 갈수하였



(백두산 천지에서)

(노천온천에 실은 열매)

다. 어두움이 깔려 질 때여서 도착한 이도백하(이도종과 백하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명) 여기저기 적힌 참작한 한글 간판이 꼭 우리나라 같지만 읽는다고 다 이해 할 수 없는 간판을 아니었다.

친숙하면서도 낯선 곳 이곳은 백두산의 관문 이도백하였다. 다음날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야 하는데 늦게 일어 나느라 아침저녁이었지만 여행에 대한 기대였을까, 일찍 잠을 잘 수 있었다.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은 피로까지 잊게 해주었다. 넓은 산길을 지나 산문 주차장에 도착한 일행은 다시 매표소를 지나 서클버스를 타고 또 한참을 올라 “7천평” 관문 단 문설주가 있는 주차장에서 하차하였다.

버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백두산 봉우리... 천지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하늘도 아는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고마울 뿐이었다. “天池” 현관을 단 문설주가 있는 주차장에 도착하여 우리 일행은 다시 1대에 7천평 분한 침자를 타야 했다. 좌우로 구비진 산길을 오르는데 지그재그 다리는온천설계가 보듯이 아니었다. 꼭 놀이공원에서 놀러온 기분이었다. 백두산은 높이 약 2,750m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다. 그런데 차를 타고 이렇게 쉽게 오를다는 것이 왠지 아쉬움이 남지만 빨리 볼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고마울 뿐이었다.

천문봉(2,670m)에 도착한 일행은 80m를 올라가 바로 신비함을 그대로 간직한 천지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내 눈에 보이는 천지 앞 그대로 신비함이였다. 일련에 삼십일 밖에 맑은날이 없다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백두산이 내 발아래 있는 것이었다. 정말 그 벽차오르는 감동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내려 가자 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남겨진 일정을 위해 아쉬움만 남기고 우리는 장백폭포로 발을 옮겼다. 장백폭포로 올라가는 길에 노천온천에 삶은 달걀은 정말 백이었다. 백두산에서 가장 웅장하다는 장백폭포, 그 웅장함만으로도 장관이었다. 장백폭포에서 떨어진 천지수를 마시며 아쉬움을 달랠 뒤 다음 견학지인 장백석민정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했다. 비포장길을 달리다보니 장백까지 80km 거리를 8시간이나 달려 도착할 수 있었다. 장백 열은 암록강을 경계로 북한 의 함경도 해산과 접해있었다. 나무가 없는 산, 정상까지 만만 할 눈으로 보지않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뒤로하고 표현하기 힘든 아른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다.

다음날 일행은 장백경관을 위대한 자연과 만날 수 있



(중국 무리현 천지 농장)



었다. 원시림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석林的 웅장함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자연의 신비인 석林. 이곳은 백두산과는 또 다른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현지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암록강 앞으로 가게 되었다. 암록강 너머에는 북한 주민들이 빨래나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꼭 우리의 60-70년대의 모습을 보는 것 만 같았다.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착함하게 만들었다.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꽃의 현지농장을 견학하고 저녁에 바베큐 파티로 이번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다.

이번여행으로 중국이 무서운 경제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으론 경제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여행으로 알게 된 이관수, 이세진, 이용복, 전필수 님들과 값진 인연을 맺게 되어서 즐거웠고, 여행내내 수고하신 우리꽃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C)



(중국 천지농장에서 바베큐 파티)

여러분들의
자발적 구독요금
후원을 기다립니다.

지정된 계좌에
구독/후원을 하시려면

농협 : 235100-56-071562
예금주 : 박공명 (우리꽃 대표 및 소식지 발행인)
전화 : (02)3412-1281~2
팩스 : (02)3412-1283

 특 집 **우리 바이오텍 연구소** 개원에 부쳐



편집자주

2006년 9월 우리꽃 부설연구소인 우리 바이오텍 연구소를 개원하였다. 경희대학교와 산학협동으로 생명과학의 새로운 유전공학적 기술과 지식기법을 도입하여 우리자원 개발육성과 좀 더 폭넓고 우수한 품종을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연구소장인 경희대학교 김영재 교수님의 글을 실는다.

인간 삶의 터전에 유래되어져오는 생명의 존재란 인간 사회에 매우 소중하고 중요시 되어지는 사물이다. 생명 근원이 원래 아주 작은 물질이란 점에서 평소의 전문가적 관심을 갖는 일 외에서는 그리 높이 인식되지 못하는 듯하다.

생명의 근본 물성을 증진한 씨앗이 몸이 트고 성장해가는 그 진리는 매우 오묘할 뿐이다. 생명의 탄생을 흔히 빛에 비유하며 진화한다. 몸이 트고, 성장해가는 것이 빛에 의함이고, 씨가 내포한 광대한 에너지를 발하여 생명 소생을 출생시키고 지속 연장시켜주기 때문이다. 그 때로서인 생명의 씨근 언제 어디서나 「빛」을 향해 자기 출생의 자태를 성숙시켜 간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들
이 받는 빛으로부터 추진된 에너지와 갖고
인 우리
다. 경회
학의 새
기법을
추 더

인류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공헌을 해왔는가 함
은 지구문명의 발전 기저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지난 역사의 과거문명과 문화로부터 현대
과학의 첨단문명 사회를 창출해온 그 실체라는
점에서 생명자원의 위대한 공헌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에 수십만 종의 생태종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자타를 위한 필요성 존재로 인류역사를 이어오면서 문명발달과 문화의 진전을 가져 온 위대함을 우리는 생태망의 관점을 벗어난 과학문명과의 이해를 얼마나 비교할 수 있을까?

인류사회의 생존과 번영의 여가자 사물공권
의 진화와 함께 유익유용태도 기인한다는 사실을 제시
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의 필수요소
나 기초 및 최후에 따른 생명형자의 가치성을 추출하고
높여가야 한다 이에 생명공여자인 신생기의 생명 지식기법
을 집합, 새로운 생물유아를 진전 시켜가고 있다. 생명자
원의 가치성 추출은 인류사회의 전반화면과 과거 문명사
의 분포를 이렇게 해왔고, 국외에 달한 현대과학은 미래
문명사회를 이룩한 채도에 올려놓을수 상상조차 어려운
급진적 비전을 추구해가고 있다는 것 또한 생명형자의
발전근거에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영원히 존재하면서도 소멸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연속과 탄생이 인류 역사와 사회발전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이전에 자연주의적 미래사회관을 염려하는 법사회주의적 정신의 큰 뜻임을 매우 바람직한 관념 인식으로 높이 평가하게 된다.

발고 이데올로미 사조, 그 이념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용한 지적자원의 고갈이 한층 더 심화되면서부터 이를 우리 사회에 선포 보급하는데 총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급변한 출판계는 된 '우리'라는 바이오맥 연구소는 그 뜻을 같이하는 '우리들' 대표 박희공영 사장의 '자본주의'철학의 개척정신을 그 (의미)지배의 틀을 바라보는 자연인의 철학적 신념을 현실화 한다는 비전 설정 근본의 취지를 갖고 본 연구소 출범의 결실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바이오맥'본 연구소는 출판의 의지대로 현재 '우리들' 같이 보유하고 있는 1000여종의 자질소출판회 회원 우리 주변의 자재들을 서서히 품을 찾아 새로운

지인개발육성사업 최선의 노력을 해나간 것이다. 본 연구소가 하고자 하는 특징적 방향은 생명과학의 새로운 유전공학기술과 지식기반을 창출, 컴퓨터로부터 무리지어 개발육성 역사에 선두적역 역할을자서 점차 좋은 결과가 지속되어 질것으로 믿어진다.

한상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이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신념과 개척정신으로 본 연구소의 발전을 기대하며, 본 연구소의 연구인 일들은 물론, '우리들' 일직선의 에너지를 원하오! 또우리들! 당부 드림이든 본 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회담과 오포를 여기에 같이 새겨본다. (9.9.99)



지상중계 이천연구소 1만3천평의 생산·연구기지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들고 황금옷으로 갈아입은 들녘.
수확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출고 및 노지 관수

봄, 여름의 정신없이 나오던 잡초도 이젠 한풀 수그러들어 결실의 계절..

가슴의 정취를 맞닿수도 없었지만 정신없는 출하차량
2대끼를 겨룬 가운데로 인하여 연일 도처에서는 스프
링클러가 2시간 돌고나고 있으며 야이하나 c.a 조경식재
작업이 병행 하는차라 직원들간 얼굴대면하는 시간이 없
을만큼 정신없는 나날의 연속이다. 물류팀은 연일 배송을
여념이 없고 생산부는 출고 및 생산차과와 정성이 없는
화중에 이천연구소와 최일선에는 '우리꽃'의 손발이 되
는 아주머니들이 있다. 봄의 바쁜 농번기에도 뜨거운 한
여름에도 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 신입직원 교육 마감

신입직원 현장실습은 추석을 기점으로 모두 완료 하였다. 한여름 땀겨울에서 연일 땀으로 목욕을 했던 3명의 신입직원, 또 칠월달에서 일주에서 날개를 펴고 으르며 날다 지구고하를 막판하고 우리들 가족 통과 의뢰인 이천 현장실습에 본사 2명의 여직원 또한 무사히 교육을 끝내고 실무에 배치 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새로운 열일곱 실습을 하고 있다.

여름에 흘린땀은 가을에 열매로 돌아오듯 이천현장에서
흘린 그들의 땀은 눈물이었다. 눈물은 우리꽃의 가족이
되었고 회사의 원동력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
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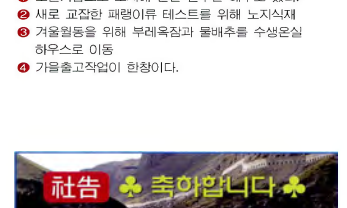


신품증 증식 및 개발

사람의 기어들은 늘 슬라이드 신제품을 기다리는 것 외엔 바쁜 일이다. 올해 첫선을 선보인 신곡탄다! 패캠이름 3년전에 개발했었다. 보다 더 좋은 제품개발을 위해 올해 각 고객들간의 교감을 통해 얻은 우수한 개체를 선택하여 노지테스트를 위해 출시 하였으며 기타 무나나드나 데이지, 왜생마커, 왜생가사, 속근코스트로 우리품, 무의 비단등자 등 많은 제품들이 육포장에서 증식중이며 내내에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4



파이어스톤

경주옹 타이어 전문회사가 만든 친환경 라이너

가정용, 옥상, 베란다 등의
소형연못 최고의 선택

EPDM 라이너!

EPDM(Ethylen propylien rubber)은 비결정성고분자물질로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물과 접촉시 니트릴, 수은 등 동식물에 해로운 성분이 유출되지 않으며, 고무특유의 냄새가 없어 조류, 물고기, 식물 등에 피해가 없고 열가소성 탄소체로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오존과 자외선에 강하다.

1. 구덩이를 파기

2. 구덩이 바닥에 플라스틱을 깔아 덮는다.

3. 구덩이 바닥에 큰 통을 놓는다.

4. 구덩이를 플라스틱으로 덮고 고정한다.

5. 물을 모으기 위한 파이프를 연결한다.

6. 완성된 빗물 수집 시스템

시공 2개월 후

한달만 뒤 모습

판매처 : 우리꽃 [02]3412-1281~2

우리꽃 찾아오는 길



① 중부고속도로 이용시

① 일죽 IC ② 장호원방향 좌회전(4.5km)
③ 이천 수산리 이정표따라 좌회전(5km)
④ 막힌 T자형삼거리 좌회전(800m)
⑤ 남해화학비료 입간판 앞 우회전

② 영동고속도로 이용시

① 이천 IC ② 장호원방향
③ 하이닉스 지나 대월삼거리 우회전 약(10km)
④ 송곡주유소(우측)
⑤ 남해화학비료 입간만 앞 좌회전

③ 이천시내 국도 이용시

① 미란다호텔 지나 직진(1km) ② 북하사거리 우회전
③ 설성, 모가방향 우측으로 빠져
④ 굴다리 아래로 좌회전 ⑤ 송곡주유소(우측)
⑥ 나래호텔비로 인가과 안 좌회전

농업적 경관, 체험, 휴식이 있는 곳 “포천 부식물원 ④”

“이 코너는 경관식물원을 표방하는 포천부식물원의 월별 주요 경관과 식물원 내의 이벤트 및 진행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제 1회 부식물원 사진전

2006년 8월 12일에 포천 부식물원에서 개최된 “제 1회 부식물원 사진전” 행사는 진장과 설비임으로 시작되었다. 행사 당일 반박반복 눈부신 햇살과 좋은 사진들, 그리고 멀리서 어려운 발걸음을 재촉하여 오신 고객 여러분들께 행사를 한층 빛내주었다.

부식물원에서 사진전을 개최한 목적은 바로 “하나됨”이다. 부식물원에 방문하여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닌 보고 느끼고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결속력을 기대하며 기획했던 행사였다.



감사하게도 가족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로 행사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었다. 참가자 분들께서는 “부식물원”에서 보고 느낀 대상을 자신의 개성으로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은 작품이었기에 쉽게 사진을 선정하여 순위를 매길 수 없었다.

사진은 작가의 시각과 생각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부식물원”의 꽃들을 바라보고서 서러를 눌러 하나의 작품이 나왔다는 생각이 가슴이 벅차올랐다.

사진동호회 회원분들께서 친히 참석하시어 감사를 해

주셨고, 향식하신 많은 고객님들께서는 잔디밭에 줄지어 세워 놓은 사진과 여름의 따스로운 햇살이 아름답다며 축제를 만끽해주었다. 또한 청운봉 산생님의 사진 특강을 통해 사진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배울 수 있었다.

후에 진행된 바베큐파티에는 보다 친근한 분위기기가 고조되었고,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더욱 즐겁고 소중했다. 참석하시고 돌아가신 한분 한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부식물원 연간회원카드”가 탄생하였는데, 부식물원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모실 것을 약속드리며, 더 많은 분들께서 부식물원을 아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해본다.

“제1회 부식물원 사진전”은 매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그 뜻도 더욱 깊이 새겨질 것이다.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식물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무지개 園”

부식물원의 무지개 동산은 봄부터 가을까지 분홍, 노랑의 속근코스모스, 스텔라원주리, 프리클 블루투스, 개장후투스, 가우라, 속근왕선인국“파라레”, 삼색조팝, 무늬원펠리카 등의 아름다운 색을 지닌 식물의 향연이 펼쳐지는 동산이다.

봄에는 무지개 동산 전체적으로 일만 꽃잔디가 만발하고 중앙에 꽃잔디 레드아이를 사용하여 “view”라고 심어놓아 부식물원의 심벌을 보여준다. 꽃잔디가 지고나면 5월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색색의 꽃들이 출몰하는 모습이다.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과 같이 바위에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이 장관이다. 또한 양귀비꽃이 지고난뒤 바로 이 자리에 갈아엎고 재정비하여 다시 가우라 3종, 왕화코스모스 등을 이용하여 무지개원과 같이 조성하였다. 형형색색의 꽃이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물결치고 있다.



- ① 제1회 부식물원 양귀비사진전
- ② 사진작가협회 김숙자 회원님의 인사말
- ③ 잔디밭에 전시된 사진작품들
- ④ 수상자 발표
- ⑤ 수상자와 사진동호회 회원들과...
- ⑥ 볼꽃을 위해 무지개원의 꽃잔디 조성취후 모습
- ⑦ 무지개원에는 아름답고 장미개화형의 꽃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만개한다.
- ⑧ 양귀비꽃이 지고난뒤 가우라 등으로 새로운 화단조성



포천 부식물원
The View Botanic Garden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441
안 내 : 031) 534-1136
서울사무소 : 02) 3412-1281~2